



3면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 공백 없도록 노력할 것"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음 10월 1일) 제361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경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앞두고 예산 최대한 반영 심혈

김관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 · 가용 인맥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7~29일)를 10일 앞두고 한발 앞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관련사진 3면>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운덕 의원(전주갑), 이성운 의원(전주을), 정동영 의원(전주병),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춘석 의원(익산갑), 한병도 의원(익산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소통에 중점을 뒀던 당초 조찬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조찬을 생략, 바로 회의 진행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논의 시간을 늘리겠다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다.

김 지사는 또한 이전 회의가 통상적으로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이는

등 긴박한 현재 예산 정국상황을 실감케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단계 증액 필요사업 5개 분야 34개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만금 SOC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내부개발 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과 전북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기 상용차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등과 함께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펩티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을 건의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다각화를 위해 △국제대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 예술플랫폼 건립 등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칙권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점사업들을 지역 국회의원별로 분담하고 국

회 심사 단계별 전방위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과 법안 처리,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전북대에서 열린 제1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해 "전북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많은 참가자들이 전북의 따뜻한 환대와 지역 음식을 경험하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대회 기간 동안 5,800만 불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성과를 발판 삼아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 확보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원팀이 되어 전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1일 '2025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날 중 종합정책질의(7~8일), 경제부처 심사(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13~14일), 예산안 조정 소위 가동(18일~) 등이 예정돼 있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모두가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 전북이 선도

내장산지구 등 2곳,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돼... 도, 국비 5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에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내장산지구)과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6개 관광지점을 신청하여 역대 최고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 중 전국 10개 광역시·도 20개 관광지점이 선정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중 2개 관광지점(정읍시 2개)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친화형 사업인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여행객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의 보행로와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유령별도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인 내장산 국립공원(내장산지구)은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으로 봉우리 정상에서 저마다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며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내장산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구절초가 피는 가을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 '무장애 보행로 신설', '배표소 행객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6년부터 2025년 사업까지 10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어 총 41개소 199억원을 투자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약자들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도 좋아지고 지역관광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적극 조성하여 모든 관광객이 열린관광지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난달 31일 군산 새만금산단 5공구에서 열린 백광산업(주) 제70주년 기념 및 이차전지 전해액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할 새만금 신공장 기공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일준 군산시장, 백광산업 정영수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백광산업 새만금산단 제1공장 '첫 삽'

2028년까지 3000억원 투자... 390명 신규 고용 창출
이차전지 ·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

최근 제2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백광산업(주)이 새만금산단 제5공구에서 이차전지 전해액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할 제1공장에 대한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관련기사 3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1일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일준 군산시장, 백광산업 정영수 대표이사 및 유관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광산업 제1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54년 설립된 백광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로 국내 무기화학 산업의 선두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2002년에는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백광산업은 이날 기공식에서 기초화학 소재 사업에서 차세대 시장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화학소재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글로벌 리딩 화학소재 기업' 비전을 선포했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설 백광산업 제1공장에서는 이차전지 전해질용액의 핵심 원료이자,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 중인 삼염화인(PC3)과 오염화인(PC5)을 연간 10만 톤 생산하여 국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물량의 70%를 대체할 수 있어, 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산업은 2023년 12월 27일에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제5공구에 전해액 제조기업 원료 공급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39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백광산업이 첨단소재 산업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혁신모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을 위해 기반 시설 확충과 인력양성, 연구개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2002년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 후 지난 20여년 동안 군산의 대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큰 성장을 이룬 백광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군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주)와 같은 이차전지 기업과 산업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새만금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중의 삼염화인(PC3)과 오염화인(PC5)을 연간 1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산업 관계자는 '혁신을 위한 빠른 전진(Fast Forward to Innovation)'이라는 구호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종합 화학 기업'을 목표로

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광산업(주)는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산단 제6공구에 7,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제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훈 기자

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달 15일까지... 총력 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대응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건조한 기상과 더불어 단풍철을 맞아 산행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군 및 읍·면·동 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를 설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 취약지 1만 4,000ha와 등산로 272개 노선(457km)에 대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배치하여 인화물질 소지자 단속과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135대를 가동해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 남원, 진안, 고창 3개 권역에 배치된 입차 헬기 3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산불의 대형화 방지와 초동 진화에 나선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제25회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예선 2024. 11월 2일(토)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판소리, 무용 단심제 및 예선)
완주군 문화체육센터(타악, 기악(가야금병창) 단심제 및 예선)

본선 2024. 11월 3일(일)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판소리, 무용, 기악 일반부 본선&종합경연)

|주최·주관| (사)한국국악협회 완주군지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군 완주군의회 (사)한국국악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조선희쟁이 권삼득 with

풍류대장 콘서트

K★pop 흥, 띄워라!

2024. 11. 1. 금요일 저녁 7:30
완주군청 테니스장 특설무대

티켓예매(무료)
완주문화예술 culture.wanju.go.kr / 선착순 500매 한정

출연진
카리스마를 자랑한 풍류대장 예미샘 최예림 50개의 악기를 섭렵한 리듬천재들 음유사인
용자와 해학을 담은 국악계 싸이 최재규 감성악극그룹 서일도와 아이들

주최·후원 완주군 완주군의회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3-290-2597